

제목: "주여 오서 오시옵소서"

말씀: 예레미야 33장 14-18절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악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수 백 년 전 벌써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 1) 예수님은 _____ 가지로 오셨습니다. (15절)
- 2) 예수님은 _____ 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
- 3) 예수님은 _____ 까지 함께 하십니다. (17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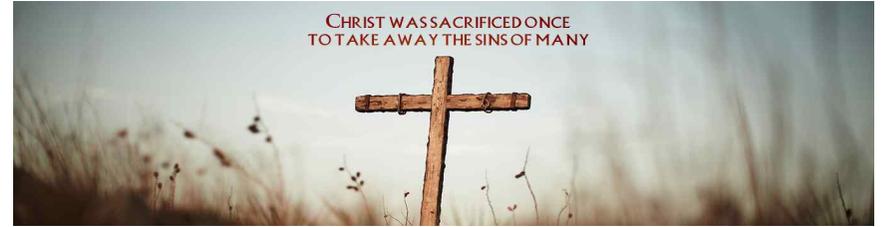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예레미야 33장 14-18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eremiah 33: 14-18 구약 1106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김성민 목사
Message Come Lord Jesus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또 다시 떠나는 만남)

감사절을 맞아 둘째 딸 부부가 어려운 시간을 내어 다녀갔다. 모처럼 만나 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그리고 어제 늦게 동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라서 더 맛있는 것을 사 먹이고 싶고,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뒤로 하고 헤어졌다.

많이 섭섭하고 많이 허전한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실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건강하기를 당부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자녀의 가정을 위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동안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달라는 부탁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딸의 부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하니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가라앉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기 때문이다.

실은 그렇게 떠나보내기 위하여 평생을 키운 것이고 그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수 십 년 동안 가르쳤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니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부모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말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꼬리가 길어가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6절)라고 말씀하신다. 그 안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비행장 문으로 들어가는 딸 내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에게 달려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음이 기뻐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자녀의 인생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대림절

오늘부터 성탄 주일까지 대림절로 지킵니다. 모두 예수님을 기대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